



코로나 시대의 “위생적”인 일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만이 쓰던 ‘유전자 증폭(PCR)’이라는 난해한 용어가 이제는 일상적인 공간에도 자리잡게 되었듯, 10년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이 대역병의 시대에, 최소한 2-30년은 지난 자료를 들추어 보는 습관이 몸에 밴 중년의 역사학자가 현재진행형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꽤나 꺼림칙한 일인지라, 필자는 ‘옛날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몇 마디 던져 보고자 한다.

5월 25일, 일본의 아베 수상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에 관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 하면서 “그야말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일본인의 위생적인 생활 양식’이 성공의 배경에 있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4월 초, 필자도 작년 여름에 전주 학회에서 ‘밀접 접촉’을 한 바 있는 환경사학자 후지하라 다쓰시(藤原辰史) 교수가 인터넷에 기고한 글(“팬데믹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에서 “일본은 의료 수준이 높고 감염자나 사망자가 적다”는 식의 낙관론에 경종을 울려 큰 반향이 있었다. 한편 환경공학자 오노 요시로(小野芳郎)는, 1996년에 병원성 대장균 O-157 문제가 터졌을 때 감염병을 ‘과거의 것’ 혹은 ‘외국의 일’로 치부하고 있던 일본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서, 각종 위생 상품으로 넘쳐나는 일본이 “청결한 나라”라는 것도 일종의 환상이 아닐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는 별개로, ‘규칙을 잘 지키고 깨끗하다’라는 일본의 이미지는 한국사회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른다. 실은, “목욕을 안 하는 불결한 조선인”이라는 담론은 20세기 초의 제국 일본이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근대 이전부터 일본사회가 과연 ‘청결’했는지에 관련해서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조선 통신사 신유한은 일본에 대해 “한여름인데도 파리가 적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청결한 일본’이라는 인상은 서구인들의 기록에서도 보인다. 열심히 청소하고(혼욕에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매일같이 몸을 씻어대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 반대로,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파리나 런던, 시카고 등을 둘러 본 일본 엘리트들은 이 대도시들의 ‘청결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목기술, 금속가공기술, 펌프 기술 등을 동원하여 건설한 상하수도 시설은 19세기 이후 공포의 대상이 된 콜레라 대책에 유용한 인프라였기 때문이었다.

콜레라는 원래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지배하던 ‘대영제국’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배 닿는 항구 항구마다’ 퍼져 나갔다. 일본에서는 1822년 이후 서구 사회와의 접촉에 의해 계속해서 콜레라의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런데 특효약이 없던 상황에서 메이지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감염자 및 가족을 강제로 격리시켰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환자를 숨기거나 차별하는 사례, 그리고 경찰이나 의사에 대한 공포와 반발 등이 나타났다. 또한 이 ‘물 건너 온 병’과 관련하여 서구인을 적대시하는 풍조도 있었다고 한다(이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엿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19세기 당시 과학의 ‘선진지역’이었던 유럽에서도 세균학은 아직 발전도 상에 있었고, 의학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코흐(Robert Koch)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것은 1884년경, 그리고 결핵균을 발견한 것은 1882년의 일이었다. 결핵은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각종 질병의 확대에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서구 사회에서는 위생학이나 도시계획, 사회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또한 구미 열강으로부터 ‘문명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리고 ‘강한 군대’를 열망하던 메이지 정부는 서구 사회를 본따 ‘위생의 근대’를 추구하게 된다. ‘청결한 일본’은 이렇듯 근대 이후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로, 20세기초 일본에서는(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결핵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가래 항아리’를 두어 가래는 여기에 뱉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가래침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생활공간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에는 벌레도 포함되었다. (필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수십 차례 이상 ‘밀접 접촉’을 한 바 있는) 과학사학자 세토구치 아키히사(瀬戸口明久)교수에 따르면, ‘해충’이라는 개념도 근대의 산물이다. 19세기 이후 미국에서는 농업에 피해를 끼치는 곤충을 ‘해충’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말이 되면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모기와 파리로 ‘해충’이 되었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열대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큰 장벽이 되었던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긴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쿠바와 필리핀 등을 배경으로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미군 내에 발생한 장티푸스를 옮긴 것이 파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농민들에게 강제로 해충 구제를 시키기도 하였고, ‘파리

잡는 날'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해충'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곤충과의 전쟁'에서 살충제는 인류 입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총력전 체제의 시대가 막을 열었는데, 사회학자인 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는 "복지(Welfare)와 전쟁(Warfare)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총력전 체제에서는 물자 생산을 위한 건강한 노동력, 강인한 병사, 그리고 튼튼한 아이를 낳는 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 보건복지 행정을 전담하는 후생성('성'은 한국 중앙정부의 '부'에 해당)이 설립된 것은 중일전쟁에 돌입한 이후인 1938년의 일이다. 여기서 필자의 연구를 덧붙이자면, 1920년대 후반 이후 특히 비타민D와 관련하여 '건강에 필요한' 자외선이 각광받던 시절에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군인이나 어린이, 가축 등에 자외선을 쬐이기도 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자외선 소독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엿보이는데, 필자로서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백 년 만에 다시금 '대역병 시대'에 접어들어,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단위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주목받고 있다. 이 팬데믹에 대해서는 미국 기원설이나 중국 기원설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교전국들이 정보를 감췄던 상황에서 참전국이 아니었던 스페인으로부터 이 질병의 유행이 알려진 바람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현재와 비교해 보자면, 그 당시는 아직 전자현미경이 없었던지라 바이러스를 볼 수 없었고, 그 이후 한 세기 동안 의료기술이나 위생환경, 영양상태 등이(최소한 세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선된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통신기술에 주목해 보자면, 주로 군대나 통신사, 상선 등이 이용하던 무선전신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으로 발전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인터넷을 집어넣고 다니는 현대는 백년 전에 비해 그만큼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1920년경, 비행기는 군용기를 제외한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탈것'이라기보다는 '구경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번 팬데믹의 공포가 닥치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객기를 타고 전세계를 누볐다. 지구가 백년 전에 비해 무척이나 작아진 현재, 백신도 확실한 치료약도 없는 단계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는 습관이나 스킨십이 적은 인사법 등을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그게 어디 일본만의 문화냐'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동시에, 설불리 "K방역"을 선전하는 것도 신중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 주요 참고문헌

- 小野芳朗 『<清潔>의近代』 講談社, 1997.
- 金凡性 『紫外線の社会史』 岩波書店, 2020.
- 瀬戸口明久 『害虫の誕生』 筑摩書房, 2009.
- 常石敬一 『結核と日本人』 岩波書店, 2011.
- 福田眞人 『結核の文化史』 名古屋大学出版会, 1995.
- 山之内靖 『総力戦体制』 筑摩書房, 2015.
- 『現代思想』 2020년5월호.



김범성
히로시마공업대 환경학부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